

WoS와 SCOPUS에 등재된 국내 발행 학술지의 편집위원회 구성 분석*

- 사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the Composition of Editorial Board Members of Domestic Journals Listed in WoS and SCOPUS: Focusing on the Field of Social Science

이 승 민 (Seungmin Lee)**

오 동 근 (Dong-Geun Oh)***

여 지 속 (Ji-Suk Yeo)****

목 차

- | | |
|------------------------|-------------------------|
| 1. 서 론 | 5. 학술지 국제화를 위한 EBM 구성 및 |
| 2. 학술지 및 편집위원회의 학술적 의의 | 역할의 고려사항 |
| 3. 데이터 수집 | 6. 결 론 |
| 4. 분석 결과 | |

초 록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국제적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편집위원회 구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학 분야의 국내 발행 학술지 가운데 WoS와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를 대상으로 편집위원회 (Editorial Board Member: EBM)의 구성을 분석하여 학술지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한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과학 분야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이론과 실무의 융합을 도모할 수 있는 EBM의 구성, EBM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지역적 측면의 고려, 영어 기반의 학술 커뮤니케이션 효율화를 고려한 EBM의 구성, 학계와 현장을 연계할 수 있는 연구진의 EBM 참여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e importance of the composition of the editorial board member is increasing as one of the measures to improve the quality of journals and to increase its international use. In this study, the composition of the Editorial Board Member (EBM) was analyzed for the journals listed in WoS and SCOPUS among domestic journals published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s to derive considerations to promote the internationalization of academic journals. As a result,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academic journals in the social science field, the composition of EBM that can promote the convergence of theory and practice, consideration of the regional aspect for the efficiency of EBM work, the composition of the EBM considering the efficiency of English-based academic communication, participation of researchers in EBM who can connect academics and the field should be considered.

키워드: 학술지 국제화,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구성, Web of Science, SCOPUS

Internationalization of Journals, Editorial Board, Composition of Editorial Board Member,
Web of Science, SCOPUS

-
- * 이 논문은 2020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위탁연구과제(국제학술지 JISTaP의 발행 및 고도화 전략 연구) 및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2A03068036).
-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ableman@cau.ac.kr / ISNI 0000 0004 6418 7521) (제1저자)
- ***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odroot@kmu.ac.kr / ISNI 0000 0000 4944 5765) (교신저자)
- ****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강사(wuhaha@chol.com / ISNI 0000 0004 6485 0514) (공동저자)
- 논문접수일자: 2020년 10월 23일 최초심사일자: 2020년 11월 6일 게재확정일자: 2020년 11월 18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4): 239-259, 2020. <http://dx.doi.org/10.4275/KSLIS.2020.54.4.239>

1. 서론

국내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가운데 Web of Science(WoS), SCOPUS 등 국제적인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학술지는 여러 분야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 창간되는 학술지의 수 역시 최근 들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학술지의 양적 증대와 함께,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의 마련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회과학 분야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친 지식정보의 포괄적인 적용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사회과학 분야에서 발행되는 학술지는 게재되는 학술논문의 전문성 제고 및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 정량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지표의 적용을 통해 학술지 자체의 인식도를 높이고 국제적인 인지도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 방안 가운데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학술지 자체의 국제적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도 효율적인 방안으로 편집위원회(Editorial Board)의 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투고되는 학술논문을 평가하고 선정하여 학술논문의 게재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게재되는 학술논문의 유통을 촉진하고, 해당 학술지의 신뢰도와 평판을 유지 및 확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인 범위에서 운영되는 학술지들은 편집위원회의 구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많은 연

구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양적, 질적 제고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다수의 학술지는 자국의 연구진 이외에 해외에서 활동하는 연구진 및 박사학위 소지자 등 학술적 깊이와 범위가 넓은 인원들을 중심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학술지의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학술지가 Web of Science(WoS), SCOPUS 등과 같은 주요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는 영어를 기반으로 한 서구권 국가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어권 혹은 비서구권 국가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상당수는 서구권 국가에서 설정한 학술지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WoS, SCOPUS 등의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가 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해당 학술지의 학문적 수준의 저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발행하는 학술지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차별적인 폐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발행하는 학술지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비영어권, 비서구권 학술지의 편집위원회 구성에 국제화가 반영될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측면 이외에도 WoS 혹은 SCOPUS 등재 학술지의 고유한 특성들을 세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행하고 있는 학술지 가운데 WoS와 SCOPUS에 등재된 사회과학 분야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편집위원회 구성에서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 각 학술지의 편집위원회 구성의 특징,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한 사항 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학술지가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고려사항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학술지 및 편집위원회의 학술적 의미

2.1 학술지의 의미

1665년에 발행된 최초의 학술지 <Journal de Schavans>를 시작으로 17세기에는 학술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될 수 있는 학술적 환경이 마련되었다. 또한 같은 해인 1665년에는 최초의 영어 학술지인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가 발행되었다(Alen, Chin and Lancaster 1994; Wells 1999). 이후 지난 350여 년 동안, 여러 학술 연구 분야에서는 학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주요 메커니즘으로 학술지를 활용해 왔다(Alzahrani 2010, 1).

학술 커뮤니케이션은 지식과 정보의 공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학술적 연구 성과를 발행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학술 커뮤니케이션은 정보적,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위해 품질 평가, 영향력 평가, 학술정보의 보존 등 다양한 측면으로 논의가 되어 왔다(Alzahrani 2010, 1). 이러한 관점에서, 학술 커뮤니케이션은 지식과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여러 정보개체들을 개인 사이에서 혹은 커뮤니티 사이에서 교류하고 공유하고 재 활용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학술 커뮤니케이션을 학술 연구에 적용하기 위해 여러 학문분야에서는 학술대회를 통한 발표 및 학술지에 학술논문을 게재함으로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학문분야의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다(박수연 외 2006, 515).

학술지는 특정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학술적 연구 성과를 교류할 수 있는 주된 경로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권위 있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학술연구의 질과 양은 한 국가의 학술 진흥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이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는 학술지 자체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술지에 학술연구를 게재하는 개별 연구자의 경력 및 이력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학술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Zoccali et al. 2015, 1948).

이에 지난 세기에 걸쳐 국내외에서는 많은 학술지가 새롭게 창간되어 왔으나, 학술 연구의 발행 및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롭게 창간되는 학술지들이 학술논문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발행되는 학술논문의 양적 측면 또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학술지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목적과 사명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있어야 하며, 학술지에 게재되는 학술논문의 양적, 질적 제고를 위한 엄정하고 투명성 있는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학술지의 질적 우수성은 해당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 자체의 학술적 우수성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논문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것은 추상적인 과정이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학술논문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개발되어 왔다. 이 가운데에서 현재 널리 적용되는 방식으로는 국제적으

로 공인된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에 학술지를 등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들 데이터베이스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학술 도구이며, 국제적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에 학술지가 등재되고 이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서지정보가 전 세계에 걸쳐 널리 배포되고 인용횟수가 높은 논문을 일반적으로 우수한 논문으로 간주하고 있다(김상준 2006, 458).

이러한 측면에서, 각국의 학문분야에서는 한 국가 내에서의 연구성과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국내 학술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친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학술지 발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 학술지는 학술지 자체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국제 학술지는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우수한 학술 연구를 게재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

국제 학술지는 여러 국가에서 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국제 학술지들은 북미 지역과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발행되어 왔다. 이러한 동향의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현재의 학문적 전통이 서양 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대표적인 이유로 들 수 있다. 또한 하나의 학술지가 Web of Science 또는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SSCI) 등과 같이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서지정보와 본문이 영어로 작성되는 것이 필수적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도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한 국가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를 국제적인

수준의 학술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국, 특히 영어권의 국가들과 협력하여 학술지를 창간 혹은 운영하거나, 아니면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은 연구자들을 학술지 편집위원으로 임명하여 학술지의 양적,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김상준 2006, 461).

또한 비영어권 국가 혹은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많은 연구자들은 이들 주요 국가와의 언어적, 문화적, 학술적 차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국제적 학술지의 창간 혹은 학술논문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발행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2.2 편집위원회의 의미와 역할

학술지의 우수성은 학술 연구성과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학술지의 수준이나 영향력을 수치화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다.

현재 대부분의 학술지 평가지표들은 학술지의 인용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큰 지표로는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IF)를 들 수 있다(김기홍 2012, 34). 하지만 이러한 정량적인 지표 이외에도 학술지가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정성적인 측면에서 학술지의 발전 및 국제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측면 중 하나로 편집위원회(Editorial Board Member: EBM)의 구성을 들 수 있다.

학술지의 운영 및 발전에 있어서 EBM이 수

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투고되는 학술논문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McGinty 1998; Dow 2000).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회는 전통적으로 학술지의 방향과 기준에 맞는 학술논문을 평가하고 선정하여 학술지에 게재를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EBM은 해당 학술지가 속한 연구 분야의 연구자 및 연구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 기반을 두고 학술논문의 게재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역할 수행에 있어서 학술연구의 콘텐츠 유통 과정에 대한 고려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EBM은 학술논문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이를 전달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고려는 포함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왔다(Dow 2000). 이로 인해 편집의 과정을 거쳐 발행이 되는 학술논문들이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Alzahrani 2010, 9). 이에 일부 연구에서는 EBM의 역할에 대한 재고찰이 이루어져 왔으며, EBM이 수행해야 하는 주요한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Oh et al. 2019, 384).

우선 EBM은 동료 평가(peer review)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학술지가 속한 학문분야의 특성 및 학술지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동료 평가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EBM은 투고된 학술논문에 대한 평가 내용과 권고 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지니게 되며, 투고된 학술논문의 게재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Zoccali et al. 2015).

또한 EBM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보다 광범위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포괄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Brinn and Jones 2008). 또한 EBM은 다른 연구자들과의 학술적 네트워크를 통해 학술지에 게재되는 학술논문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Nguyen et al. 2018). 이외에도 EBM은 학술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며, 학술지의 발행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Alzahrani 2010).

EBM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에 대한 재고찰이 이루어지면서, 학술지에서의 EBM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고 정립하는 연구가 다수 수행되어 왔다. 이 가운데 학술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EBM의 학술적 자격 및 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EBM의 학술논문 발행 빈도 분석(Bates et al. 2011), EBM이 자신이 속한 학술지에 학술논문을 게재한 빈도 분석(Walters 2016; Rösing, Junges and Haas 2014), 개발도상국에서의 EBM의 순위 분석(Mabawonku and Ainal 2005) 등을 대표적인 연구로 들 수 있다.

이외에도 EBM의 구성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EBM의 국제적인 구성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arcía-Carpintero, Granadino and Plaza(2010)는 2005년 ISI 인용 보고서를 기반으로 상위 20개 학술지의 EBM 국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들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에서는 미국(53%)과 영국(9.8%) 출신의 EBM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제적인 신뢰성 및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술지가 서구, 특히 북미 국가에서 발행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EBM의 구성의 일반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Brinn and Jones(2008)는 학술지를 발행하는 국가의 연구진들이 EBM으로 선임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EBM의 구성이 학술지가 발행되는 국가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와 관련해서 Bunner and Larson(2012)은 EBM의 구성이 학술지의 발행 프로세스에 있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유능한 연구자들이 EBM의 구성에 참여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특정 국가에서 발행되는 학술지를 중심으로 EBM의 국제적 구성을 조사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연구로, Brinn and Jones(2008)는 영국에서 발행되는 학술지에 미국 및 해외 연구자들이 EBM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Fradkin(2017)은 브라질에서 발행하는 심리학 분야의 학술지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EBM의 국제화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연구진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Willett(2013)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16개 주요 국제 학술지의 EBM을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404명의 EBM 중 198명(49%)이 미국 국적을 확인하였다. 또한 Oh et al.(2018)은 서구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되는 학술지의 EBM 구성을 분석한 결과, 서구 국가 출신의 EBM의 수

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EBM의 구성에서 영어권 혹은 유럽이나 서구 국가의 연구진을 확보하는 것이 학술지의 내적, 외적 확장 및 발전에 있어 효율적인 방안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Dhanani and Jones(2017)는 회계 분야의 학술지 가운데 미국에서 발행되지 않는 학술지의 EBM에서 미국 국적의 연구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술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EBM의 역할이 증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Braun and Diospatonyi 2005; Murray et al. 2018).

하지만 이러한 EBM의 구성이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질적 평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American Journal of Annurance은 국제적으로 구성된 EBM가 오랜 기간에 걸쳐 국제적인 연구 동향을 반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학술지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있어 지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Grzybowski and Kanclerz 2019). 이와 같이, 여러 국가에서는 자국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투명성 향상 및 학술논문의 질적, 양적 제고를 위해 국제적으로 EBM을 구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Utrobčić et al. 2014).

2.3 편집위원회의 구성

학술지의 EBM은 동료 평가와 관련된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며, 학술지에 수록되는 학술논문의 콘텐츠 관리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한다. 편집위원회는 Editor-in-Chief, Co-Editor,

Managing Editor, Associate Editor, Member of Editorial Board 등 여러 직무를 담당하는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Pearson et al. 2006). 이들 직무를 담당하는 EBM들은 학술 분야 및 해당 학술지에 대한 자발적인 봉사 및 명예로 해당 직무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EBM 구성 인원들은 다양한 학술 분야에 종사하는 인원들로 구성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Alzahrani 2010, 42; Resh 1998).

편집위원장은 대부분 대학 교수 등 전문 학술연구자로 종사하는 인원이 임명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학술지의 평판이나 위상이 편집위원장의 선임과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Mulligan 2005; Harnad 1996). 편집위원장으로 선임되는 연구자는 학술적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학회에서의 활동 및 해당 분야에서의 학술활동 등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권위를 인정받은 인원이 대부분의 경우를 차지하고 있다. 편집위원장의 임명에 있어서는 학술지를 발행하는 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편집위원장으로 임명되는 연구자의 개인적인 평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McGinty 1998).

학술지별 편집위원회의 규모는 각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규모 학술지의 경우에는 2~3명 정도의 인원이 편집위원회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규모 학술지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수십 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되기도 한다(Crase 1992; Giménez-Toledo et al. 2009). 이와 같이 편집위원회의 구성 규모는 상황에 따라 극히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EBM의 지역적, 국제적 포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대부분의 학술지들이 동일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많은 학술지에서는 편집위원회의 구성에서 국제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Zsindely, Schubert and Braun 1982; Nisonger 2002).

EBM의 학력과 관련해서는, EBM으로 선임되고 활동하는 대부분의 인원들은 박사학위를 소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해당 학문분야에서 활발한 학술활동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ogarty and Liao 2009; Lindsey 1976). 이와 같이, EBM의 구성은 국제적인 범위와 박사학위 소지자 등 학술적 깊이와 범위가 넓은 인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학술지의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학술지들은 WoS, SCOPUS 등과 같은 주요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비영어권 혹은 비서구권 국가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상당수는 서구권 국가에서 설정한 학술지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WoS, SCOPUS 등의 데이터베이스에 등재가 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해당 학술지의 학문적 수준의 저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발행하는 학술지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차별적인 폐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발행하는 학술지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비영어권, 비서구권 학술지의 편집위원회 구성에 국제화가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WoS 혹은 SCOPUS 등재 학술지의 고유한 특성들을 세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행하고 있는 학술지 가운데 WoS와 SCOPUS에 등재된 사회과학 분야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편집위원회의 구성에서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각 학술지의 편집위원 구성의 특징,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한 사항 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학술지가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고려사항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사회과학 분야 학술지 가운데 Web of Science(WoS)와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 33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 학술지의 EBM과 관련한 정보는 각 학술지의 웹사이트를 통해 입수하였으며, WoS 2019 및 SCOPUS 2019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EBM의 소속 국가, 학위, 소속 기관 등을 추출하였다.

학술지와 관련해서는, 총 33종의 학술지 가운데 중복된 2종을 제외한 31종의 학술지가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학술지 1종을 제외한 총 30종의 학술지가 연구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다([부록 1] 참조).

분석 대상 학술지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역학(Area Studies) 1종,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2종, 문화학(Cultural Studies) 5종, 경제학(Economics) 5종, 교육학(Education) 3종, 지리학(Geography) 1종, 체육학(Health) 1종, 국제관계학(International Relation) 2종, 법학(Law) 1종, 문헌정보학(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종, 언어학(Linguistics) 3종, 안전연구 분야(Safety Research) 1종, 여성학(Women's Studies) 2종, 기타 2종 등 다양

한 분야에 걸쳐서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 등재 여부와 관련해서는, SSCI에만 등재된 학술지 2종, SCOPUS에만 등재된 학술지 23종, SCOPUS와 SSCI에 모두 등재된 학술지는 5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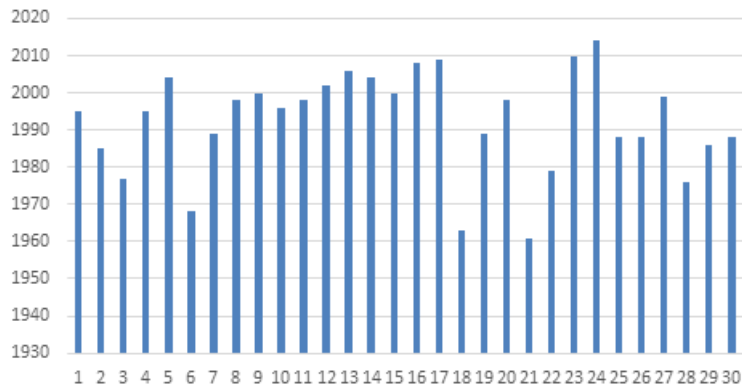
EBM과 관련해서, 분석 대상 학술지의 EBM은 총 1,13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이메일의 확보가 가능한 EBM 1,095명이 확인되었다. 이들 가운데 여러 학술지에 중복해서 EBM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을 제외한 총 1,072명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4. 분석 결과

4.1 WoS 및 SCOPUS 등재 학술지 분석

학술지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중 창간 연도는 해당 학술지의 역사 및 학술 분야 내에서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분석 대상 학술지의 특성 중 창간 연도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그림 1> 참조). 분석 결과, 1960년대 창간 3종, 1970년대 창간 3종, 1980년대 창간 7종, 1990년대 창간 7종, 2000년대 창간 8종, 2010년대 창간 2종 등 대부분의 학술지는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에 창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학술지의 발행 주기는 해당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양적 측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일부 학술지의 경우에는 게재 논문의 질적 수준의 확보라는 측면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에 학술지의 발행 주기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 분석



〈그림 1〉 분석 대상 학술지의 발행연도 분포

대상 학술지의 발행 주기는 월간 2종, 연간 1종, 반년간 8종, 연 3회 발행 1종, 계간 17종으로 분석되었다. 즉, 대부분의 학술지들은 연 4회 발행주기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외 연 2회 발행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국내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가운데 WoS 또는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는 대부분 계간의 발행주기를 적용하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에 창간한 학술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문헌정보학 분야의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JISTaP)와 문화연구 분야의 Korea Journal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학술지이며,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Science Editing은 2014년 창간으로 가장 짧은 발행 기간을 보이고 있다.

4.2 WoS 및 SCOPUS 등재 학술지의 EBM 분석

4.2.1 EBM 구성 인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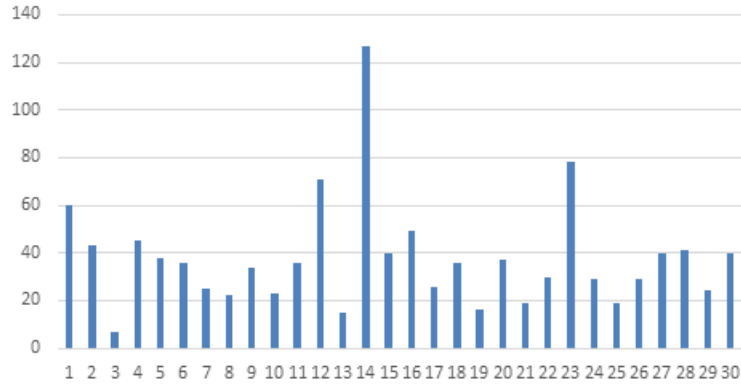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총 30종의 학술지의

EBM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총 1,136명으로 분석되었으며, 학술지당 평균 37.8명으로 나타났다. EBM의 수가 가장 적은 학술지는 Asian Perspective로 총 7명의 EBM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반면 Journal of Asia TEFL은 총 127명의 EBM이 활동하고 있다. 이외 대부분의 학술지는 20명에서 40명대의 EBM 구성 분포를 보이고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EBM의 구성은 학술지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약 20명에서 40명 사이의 EBM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SSCI 등재 학술지(ID 1~ ID 2) 혹은 SSCI와 SCOPUS 모두에 등재가 되어 있는 학술지(ID 3~ID 5)의 EBM의 양적인 수는 SCOPUS에만 등재되어 있는 학술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술지의 EBM의 양적인 측면보다는 각 EBM의 활동 혹은 역량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4.2.2 EBM 직위 분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석 대상 학술지 30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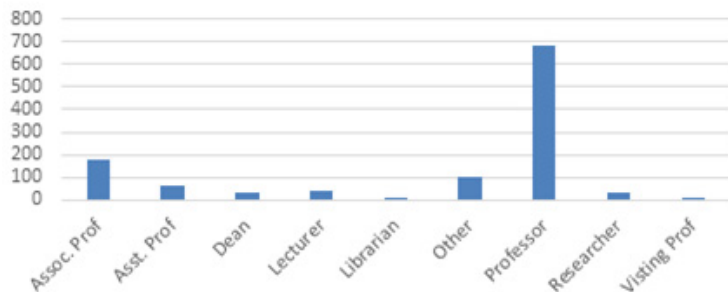
〈그림 2〉 분석 대상 학술지의 EBM 수 분포

의 EBM은 총 1,07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술지당 평균 37.8명의 EBM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EBM을 직위별로 분석해 보면, 편집위원회 내에서의 직위는 Editor in Chief, Co-Editor, Managing Editor, Editorial Committee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서의 직위는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겸임교수, 전임강사, 연구원, 사서,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장급(Dean) 29명, 정교수(Professor) 683명,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241명,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37명, 연구원(Researcher) 34명, 겸임교수(Visiting

Professor) 2명, 사서(Librarian) 5명, 기타 101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타에 속한 직위는 각각의 EBM이 속한 기관 내의 특정 직위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들 대부분은 연구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EBM의 소속기관에서의 직위는 정교수 직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63.71%), 이후 부교수(22.48%), 조교수(3.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강사의 경우에는 각 국가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국과 호주의 경우에는 대학 교원의 지위가 다소 다르게 운영되고 있



〈그림 3〉 분석 대상 학술지의 EBM 직위 분포

으며, 따라서 영국과 호주 국적의 강사직은 다른 국가에서의 조교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면, 대학에 소속된 연구진이 EBM 구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 기관에서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연구 인력이 EBM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에 수행된 EBM 관련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며(Oh et al. 2019a; Oh et al. 2019b), 대부분의 학술지가 학술연구에 중점을 두고 학술논문의 게재와 학술지 운영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4.2.3 학술지 발행 기관 분석

연구 대상 학술지의 발행기관은 학술지의 운영 및 발전에 있어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EBM의 구성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학술지를 발행하는 기관의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학술지들은 대학연구소 혹은 학회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의 63.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학술활동

에 중점을 두는 연구소 및 여러 학자들이 학술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학회가 학술지의 발행 및 운영에 있어 많은 효용성을 가져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4.2.4 EBM 소속 국가 분석

WoS 혹은 SCOPUS 등과 같은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학술지는 그 활용의 범위가 전 세계에 걸쳐 있으며, 공용 학술어인 영어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서 영어권의 학술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국 영어권 국가 혹은 서구 국가의 언어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이 지배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많은 학술지에서는 국제화를 고려하여 EBM을 구성할 때 영어권 및 서구권의 연구자들을 초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해당 학술지가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고, 보다 많은 양질의 학술논문을 유도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학술지의 EBM이 속한 국가 측면에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표 1> 학술지 발행기관 유형 분석

발행기관		기관수	비율
연구소	대학	10	33.3%
	정부출연	4	13.3%
	사립	2	6.7%
	공립	1	3.3%
			56.7%
학회		9	30.0%
대학		1	3.3%
박물관		1	3.3%
협회		1	3.3%
미상		1	3.3%
합계		30	100.0%

분석 결과, 한국 국적의 EBM이 총 423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 미국 221명, 일본 65명, 중국 61명, 영국 45명 대만 36명, 호주 27명, 캐나다 2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EBM의 소속 국가는 총 55개국으로 나타났으며, 최소 1명에서 최대 423명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대상 학술지가 한국에서 발행되는 학술지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한국 국적의 EBM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 미국 221명과 영국 45명 등 영어권과 서구권 소속 국가의 비중이 전체 EBM의 33.1%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학술지 국제화를 위한 EBM 구성 및 역할의 고려사항

5.1 EBM 구성의 일반적 경향

WoS, SCOPUS 등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있는 국내 발행 학술지의 EBM은 각 소속 기관 내에서 다양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EBM은 연구진, 특히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경로로서 기능을 하는 학술지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회과학분야는 이론과 실체가 융합되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학 소속 연구진 이외에도 사서, 연구원 등 현

〈표 2〉 분석 대상 학술지 EBM의 국가별 분포

국가	N(명)	국가	N(명)	국가	N(명)
한국	423	뉴질랜드	8	스위스	2
미국	221	스웨덴	6	아랍에미레이트	2
일본	65	베트남	6	알바니아	1
중국	61	이탈리아	5	아르헨티나	1
영국	45	카자흐스탄	4	브라질	1
대만	36	우즈베키스탄	4	브루나이	1
호주	27	방글라데시	3	캄보디아	1
캐나다	24	덴마크	3	카메룬	1
태국	21	이란	3	칠레	1
인도	19	남아프리카공화국	3	크로아티아	1
싱가폴	19	터키	3	온두라스	1
독일	17	오스트리아	2	이스라엘	1
필리핀	16	벨기에	2	쿠웨이트	1
홍콩	14	핀란드	2	레바논	1
말레이시아	14	사우디아라비아	2	멕시코	1
인도네시아	11	나이지리아	2	오만	1
러시아	10	노르웨이	2	파키스탄	1
프랑스	8	스페인	2	폴란드	1
네덜란드	8				

장에서 이론과 실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EBM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 등재 학술지의 경우에는 학술적 공용어로 영어가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상당수의 국제 학술지는 서구권 및 영어권 국가에서 발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서구권이나 영어권의 학술 문화를 따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국내에서 발행되는 학술지의 경우에도 영어권 국가 및 서구 국가의 연구진을 EBM으로 구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국내 발행 학술지가 지닌 특성으로 인해 한국의 연구진이 학술지의 EBM 구성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제적인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는 것은 학술지 자체의 위상 제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 발행 등재 학술지에서도 국제적인 EBM의 구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20.62%)과 영국(4.19%), 호주(2.52%), 캐나다(2.24%) 등 영어권 및 서구권 국가의 연구진이 전체 EBM의 29.57%를 차지하고 있어 EBM의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술지의 EBM 구성 규모 측면에서 보면, EBM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역할을 소수의 인원이 충분하게 수행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국제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학술지의 EBM 구성은 국제화뿐만 아니라 대규모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양적, 질적 제고 및 이를 통한 학술지의 국제적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EBM의 학술 커뮤니케이션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이는 학술지 게재 논문의 양적, 질적 수준 제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국내 발행 학술지의 경우에도 국제적인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학술지의 상당수는 언어적, 학술문화적 측면에서 EBM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학술지 운영의 국제화에서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EBM의 구성이 국제화의 양상을 보이는 것은 국내 발행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질적 수준이 낮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게재되는 논문의 학술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학술지의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는데 있어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라는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국내 발행 학술지의 국제적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학술지의 중요한 측면인 EBM의 구성에 있어서도 국제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5.2 EBM 구성의 고려사항

EBM은 학술지의 전체적인 운영, 특히 학술지의 양적, 질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BM의 구성에 따라서 학술지를 통한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범위와 정도가 결정되기도 하며, 이를 통해 학술지의 전체적인 운영 방향이 결정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학술지의 EBM을 구성할 때에는 해당 학술지의 목적과 학문적 방향, 학술지의 양적, 질적 제고 등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학술지의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는 측면에서는 EBM

구성의 국제화를 반영하는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학술지의 EBM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학술지의 EBM을 구성할 때는 개별 EBM에 대한 신뢰도 및 지리적 근접성이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Walter, Mueller and Helfert 2000; Ma et al. 2014), 이로 인해 학술지를 발행하는 국가의 연구진 혹은 동일 국가 출신의 연구진을 중심으로 EBM을 구성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EBM의 언어적, 문화적 동질성을 통해 EBM은 양적, 질적으로 보다 많은 학술논문을 유치할 수 있으며, EBM의 활동에 있어서의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EBM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언어적인 측면에서 학술 공용어인 영어의 적용을 들 수 있다. 국제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대부분의 학술지들은 영어를 주된 언어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영어권 혹은 서구 국가의 EBM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Harzing and Metz 2012). 학술지의 국제화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연구자들이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을 활용하는데 있어 보다 편리한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국제 학술지는 영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국제 학술대회의 운영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수많은 최신 연구결과들은 일반적으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학술지의 EBM은 국내외를 막론하

고 최신 연구결과를 확인하고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국제 학술대회에서의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적인 범위에서 운영되는 학술대회에의 참여와 EBM의 활동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Burgess and Shaw 2010). 하지만 대부분의 국제 학술대회는 영어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학술지의 EBM 구성에 있어서는 언어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EBM 구성에서의 학문적 수준 제고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국제 학술지는 대규모의 EB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가 요구하는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학술지들이 영어권 혹은 서구 국가들의 학술적 문화를 충분히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들 국가들이 요구하는 학술지의 질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학술지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학술적 위상을 갖추고 있는 충분한 수의 연구진으로 EBM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과학의 학문적 특성을 반영하여 이론과 실체를 연계할 수 있는 연구진을 EBM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들은 학술지의 발행 과정에서 학술지의 현장 적용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Schlögl and Petschnig 2005), 이를 통해 이론과 현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EBM 구성이 가능할 것이다.

6. 결 론

현재 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학술지는 학술지의 인지도 정립 및 학술지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적인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학술지의 전문성 제고 및 게재 논문의 질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평가 지표를 적용하고 있으며, 학술지의 국내외적 인지도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학술지의 질적 수준 제고와 국제적 이용도 향상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EBM의 구성을 들 수 있다. EBM은 학술지에 투고되는 학술논문을 평가하고 선정하여 학술논문의 게재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인 범위에서 운영되는 학술지들은 EBM의 구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내외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양적, 질적 제고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는 영어권 혹은 서구권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비영어권 혹은 비서구권 국가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상당수는 서구권 국가에서 설정한 학술지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학술지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비영어권, 비서구권 학술지의 EBM 구성에 국제화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가운데 WoS와 SCOPUS에 등재된 사회과학 분야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EBM의 구성에서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발행 학술지가 국제적 범위에서의

활용성을 확보하고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고려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WoS, SCOPUS 등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있는 국내 발행 학술지의 EBM은 대부분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경로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론과 실체가 융합되어야 하는 사회과학의 특성을 고려하면 대학 소속의 연구진 이외에도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EBM의 구성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 발행 학술지가 지니는 특성으로 인해 한국의 연구진이 EBM의 구성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EBM의 커뮤니케이션이나 협업의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방향이 될 수 있지만,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학술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EBM 구성의 국제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적인 학술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EBM의 구성은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한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언어적인 측면에서, 학술적 공용어인 영어의 적용을 들 수 있다. 상당수의 국제 학술지는 서구권 및 영어권의 학술적 문화를 따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EBM의 구성에 있어서 영어 기반의 학술 커뮤니케이션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의 EBM 구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과학 분야의 학술지는 다양한 이론과 실무를 결합할 수 있는 현장 중심적인 연구 결과물의 중요성이 높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학술지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서는 학술적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측

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계와 현장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규모의 EBM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EBM의 구성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국내 발행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질적 수준이 낮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게재되는 논문의 학술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학술지의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는데 있어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라는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국내 발행 학술지가 국제적인 수준에서 운용·활용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서의 EBM 구성을 고려할 때, EBM의 구성을 위해 제안한 이러한 사항들은 학술지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경로로서의 학술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가운데 WoS와 SCOPUS에 등재된 사회과학 분야의 학술지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해외, 특히 영어권이나 서구권에서 발행하는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 등재 학술지의 EBM과의 비교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명확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행한 학술지 가운데 국제적인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학술지의 EBM 구성의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국내 발행 학술지가 국제적인 위상을 정립하는데 있어서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1] 김기홍. 2012. 학술지를 평가하는 다양한 지표, 그 특징과 문제점. 『과학편집』, 1(1): 34-39.
- [2] 김상준. 2006. 국내 학술지의 국제적 유통 활성화에 관한 연구: 의학과 생명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2): 457-480.
- [3] 박수연 외. 2006. 최근 6년간 대한영상의학회지의 학술 인용추이 분석 및 개선방향 모색: 한국의학 학술지 인용색인 자료 분석. 『대한영상의학학회지』, 55: 515-521.
- [4] Alzahrani Saad. 2010. *The Role of Editorial Boards of Scholarly Journals on the Green and the Gold Road to Open Access*. Ph.D Diss. Library, Archival and Information Studies, The Faculty of Graduate Studies,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5] Bates, Homer L. et al. 2011. "Accounting Editorial Board Membership and Research Output." *Journal of Business & Economics Research*, 9(3): 39-46.
- [6] Braun, T. and Dióspatonyi, I. 2005. "Counting the Gatekeepers of International Science Journals a Worthwhile Science Indicator." *Current Science*, 89(9): 1548-1551.
- [7] Brinn, T. and Jones, M. J. 2008. "The Composition of Editorial Boards in Accounting: A

- U.K. Perspective.” *Accounting, Auditing & Accountability Journal*, 21(1): 5-35.
- [8] Bunner, C. and Larson, E. L. 2012. “Assessing the Quality of the Peer Review Process: Author and Editorial Board Member Perspectives.” *American Journal of Infection Control*, 40(8): 701-704.
- [9] Burgess, T. F. and Shaw, N. E. 2010. “Editorial Board Membership of Management and Business Journals: A Social Network Analysis Study of the Financial Times 40.” *British Journal of Management*, 21: 627-648.
- [9] Crase, D. 1992. “Editors, Editorial boards, and Reviewers: The Gatekeepers of Knowledge.” *Physical Educator*, 49(1): 28-32.
- [10] Dhanani, A. and Jones, M. J. 2017. “Editorial Boards of Accounting Journals: Gender Diversity and Internationalisation.” *Accounting, Auditing & Accountability Journal*, 30(5): 1008-1040.
- [11] Dow, R. F. 2000. “Editorial Gatekeepers Confronted by the Electronic Journal.”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1(2): 146-154.
- [12] Fogarty, T. J. and Liao, C-H. 2009. “Blessed are the Gatekeepers: A Longitudinal Study of the Editorial Boards of the Accounting Review.”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24(3): 299-318.
- [13] Fradkin, C. 2017. “The Internationalization of Psychology Journals in Brazil: A Bibliometric Examination Based on Four Indices.” *Paidéia (Ribeirão Preto)*, 27(66): 7-15.
- [14] García-Carpintero, E., Granadino B. and Plaza, L. M. 2010. “The Representation of Nationalities on the Editorial Boards of International Journals and the Promotion of the Scientific Output of the Same Countries.” *Scientometrics*, 84(3): 799-811.
- [15] Giménez-Toledo, E. et al. 2009. “The Editorial Boards of Spanish Scholarly Journals: What Are They Like? What Should They Be Like?” *Journal of Scholarly Publishing*, 40(3): 287-306.
- [16] Grzybowski, A. and Kanclerz, P. 2019. “International Board Members of the American Journal of Ophthalmology.” *American Journal of Ophthalmology*, 199: xiii-xvi.
- [17] Harnad, S. 1996. Implementing Peer Review on the Net: Scientific Quality Control in Scholarly Electronic Journals. In R. Peek & G. Newby eds. *Scholarly Publication: The Electronic Frontier*. (pp. 103-108.). Cambridge, MA: MIT Press.
- [18] Harzing, Anne-Wil and Metz, Isabel. 2012. “Explaining Geographic Diversity of Editorial Boards: The Role of Conference Participation and English Language Skill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6(6): 697-715.
- [18] Lindsey, D. 1976. “Distinction, Achievement, and Editorial Board Membership.” *American*

- Psychologist*, 31: 799-804.
- [19] Ma, Haitao et al. 2014. "The Effect of Geographical Proximity on Scientific Cooperation among Chinese Cities from 1990 to 2010." *PLOS ONE*, 9(11): e111705.
- [20] Mabawonku, I. and Aina, L. O. 2005. "Characteristic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s Published in West Africa." *South African Journal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 71(3): 275-281.
- [21] McGinty, S. 1998. *Guardians at the Gate: Scholarly Journal Editors in a Time of Change*. Ph.D Diss. Boston College, Boston, USA.
- [22] Mulligan, A. 2005. "Is Peer Review in Crisis?" *Oral Oncology*, 41: 135-141.
- [23] Murray, D. et al. 2018. "Gender and International Diversity Improves Equity in Peer Review." *BioRxiv*, 400515.
- [24] Nguyen, V. et al. 2018. "The Use of Solicited Publishing by Academic Surgeons." *Surgery*, 164(2): 212-218.
- [25] Nisonger, T.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Editorial Board Composition and Citation Measures in Political Science, Business, and Genetics Journals." *Scientometrics*, 54(2): 257-268.
- [26] Oh, Dong-Geun et al. 2019a. "A Comparison of Editorial Board Members of Non-Western Journals and Core LIS Journals." In *Proceedings of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uly 11-13, 2019, Taipei, Taiwan, 383-394.
- [27] Oh, Dong-Geun et al. 2019b. "A Comparative Analysis of Editorial Leaders' Profiles of Major and Non-Wester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s."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7(4): 20-32.
- [28] Oh, Dong-Geun et al. 2018.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Editorial Board Members of Non-North-American and Non-European LIS Journals Listed in WoS and SCOPUS." In *Proceedings of the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pen Library to Open Society (iCoo 2018)*, Sukhothai Thammathirat Open University, Thailand, 152-163.
- [29] Pearson, C. H. et al. 2006. "Associate Editor's Role in Helping Authors and Upholding Journal Standards." *Agronomy Journal*, 98: 417 - 422.
- [30] Resh, V. H. 1998. "Science and Communication: An Author/Editor/User's Perspective on the Transition from Paper to Electronic Publishing." *Issues in Science & Technology Librarianship*, 19: 1-7.
- [31] Rösing, C. K., Junges, R. and Haas, A. N. 2014. "Publication Rates of Editorial Board Members in Oral Health Journals." *Brazilian Oral Research*, 28(1): 1-5.

- [32] Schlägl, C. and Petschnig, W. 2005.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s: An Editor Survey." *Library Collections, Acquisitions, and Technical Services*, 29(1): 4-32.
- [32] Utrobičić, A. et al. 2014. "Composition of Editorial Boards and Peer Review Policies of Croatian Journals Indexed in Web of Science and SCOPUS." *European Science Editing*, 2: 31-33.
- [33] Walters, W. H. 2016. "The Research Contributions of Editorial Board Member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Scholarly Publishing*, 47(2): 121-146.
- [34] Walter, Achim, Mueller, Thilo A. and Helfert, Gabriele. 2000. "The Impact of Satisfaction, Trust, and Relationship Value on Commitment: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Empirical Results." In *Proceedings of the 16th IMP Conference*, Bath, United Kingdom, 7-9.
- [35] Willett, Peter. 2013. "The Characteristics of Journal Editorial Boar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3(1): 5-17.
- [36] Zoccali, Carmine et al. 2015. "The Fate of Triaged and Rejected Manuscripts." *Nephrol Dial Transplant*, 30: 1947-1950.
- [37] Zsindely, S., Schubert, A. and Braun, T. 1982. "Citation Patterns of Editorial Gatekeepers in International Chemistry Journals." *Scientometrics*, 4: 69-76.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im, Kihong. 2012. "Various Indicators for Evaluating Journals, Their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Science Editing*, 1(1): 34-39.
- [2] Kim, Sang-Jun. 2006. "An Effective Way to the International distribution of Korean Medical and Life Science Journa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0(2): 457-480.
- [3] Park, Soo Youn et al. 2006. "Recent Trends of Citation Status and Suggestions for Improved the Academic Authority of the Journal of the Korean Radiological Society during 2000-2005: Analysis of All Citations using KoMCI." *Journal of Korean Radiology Society*, 55: 515-521.

[부록 1] 연구대상 학술지 및 EBM

ID	색인DB	학술지 표제	EBM 수	주제분야	학문영역	발행처	발행연도
1	SSCI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60	Social Science	Women's Studies	Asian Center for Women's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1995
2	SSCI	Korean Economic Review	43	Social Science	Economics	Korean Economic Association	1985
3	SSCI Scopus	Asian Perspective	7	Social Science	International Relations (ssci) Life-span and Life-course Studies (scopus)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9-)	1977
4	SSCI Scopus	Asian Women	45	Social Science	Women's Studies (ssci) Gender Studies (scopus)	Research Institute of Asian Wome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95
5	SSCI Scopus	KEDI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	38	Social Science	Education (ssci/scopus)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2004
6	SSCI Scopus	Korea Observer	36	Social Science	Area Studies, International Relations (ssci) Miscellaneous (scopus)	Institute of Korean Studies	1968
7	SSCI Scopus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5	Social Science	International Relations (ssci)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afety Research (scopus)	한국국방연구원	1989
8	Scopus	Acta Koreana	22	Social Science	Cultural Studies	Academia Koreana, Keimyung University,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Springer Netherlands	1998
9	Scopus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34	Social Science	Education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Springer Netherlands	2000
10	Scopus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23	Social Science	Communication Linguistics and Language	The Korean Academy of Speech-Language Pathology and Audiology	1996
11	Scopus	Development and Society	36	Social Science	Miscellaneous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1998
12	Scopus	Industrial Engineering and Management Systems	71	Social Science	Miscellaneous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ngineers	2002
13	Scopu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15	Social Science	Cultural Studies	국립민속박물관	2006
14	Scopus	Journal of Asia TEFL	127	Social Science	Education, Linguistics and Language	The Asi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siaTEFL)	2004

ID	색인DB	학술지 표제	EBM 수	주제분야	학문영역	발행처	발행연도
15	Scopus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40	Social Science	Linguistics and Language	Institute of Cognitive Science	2000
16	Scopus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49	Social Science	Law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2008
17	Scopus	Journal of Eurasian Studies	26	Social Science	Cultural Studies	The Asia-Pacific Research Center	2009
18	Scopus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36	Social Scienc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1963
19	Scopu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6	Social Science	Health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989
20	Scopu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37	Social Science	Geography, Planning and Development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1998
21	Scopus	Korea Journal	19	Social Science	Cultural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961
22	Scopus	Linguistic Research	30	Social Science	Linguistics and Language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nguage and Information	1979
23	Scopus	Safety and Health at Work	78	Social Science	Safety Researc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2010
24	Scopus	Science Editing	29	Social Science	Communication	Korean Council of Science Editors	2014
25	Scopus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19	Social Science	Linguistics and Languag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1988
26	Scopus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29	Social Science	Cultural Studies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1988
27	Scopus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40	Economics, Econometrics and Finance	Economics and Econometrics	Korea Distribution Science Association	1999
28	Scopus	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	41	Economics, Econometrics and Finance	Economics and Econometrics	The Economic Research Institute	1976
29	Scopus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24	Economics, Econometrics and Finance	Economics, Econometrics and Finance (miscellaneous)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1986
30	Scopus	Seoul Journal of Economics	40	Economics, Econometrics and Finance	Economics, Econometrics and Finance (miscellaneous)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Korean Labor Economic Association	1988